

‘광주형 일자리’ 승부수 던졌는데...

노동계 ‘NO’ 할까 광주시 ‘노심초사’

비, 노동계 요구 모두 수용
한국노총 19일 참여 여부 결정
현대차 받아들일지도 의문

일자리 창출의 획기적인 방안으로 주목받았던 ‘광주형 일자리’가 중대 기로에 섰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노·사·민·정 구도의 한 축인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투자자인 현대자동차의 투자 의지마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9일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광주형 일자리’의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시의 참여 요청이 재차 부결될 경우 민선 6기를 거쳐 민선 7기 초반까지 4년 넘게 논의됐던 ‘광주형 일자리’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3면〉**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4일 중간보고 형태로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노동계의 참여를 호소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 때문이다. 노동계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노동계는 물론 협상팀 참여, ‘광주형 일자리’ 용역 결과 제시된 초임 연봉 4000만원 보장, 경영 참여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인 현대차가 이 같은 주장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그동안 광주시가 선뜻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광주공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생산 차종의 판매량 및 수익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임금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시와 현대차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 시장이 “현대차를 설득해보겠다”며 ▲투자 협상 노동계 참여 보장 ▲노사민정 합의 4대 원칙(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원하청 개선·노사공동책임 경영) 준수 등을 받아들인다면 노동계가 참여하더라도 향후 현대차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자동차 업계 고임금의 절반, 광주시의 주가·교육·의료 등 복지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공장을 짓기 위해 중국, 동남아, 남미 등으로 향하는 대기업을 붙잡는 유일한 방안으로 조명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현대차 투자만이 아니라 투자 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돼 있으며, ‘광주형 일자리’가 자리를 잡게 되면 다른 대기업을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전망이다.

결국 노동계와 현대차 사이에서 고민하던 광주시가 시민과 노동계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광주형 일자리’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 시장은 “노동계가 우리의 아들딸들과 광주의 미래를 위해 결단하고 함께 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결자해지의 책임감과 시대적 소명의식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지역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하지 못하고 더 지체되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민 여러분, 뜻을 모아주시고. 노동계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벼랑 끝에 선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한다”고 마무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호남 상생장터 ‘화합의 꽃’ 피었다



‘2018 영호남 문화대축전’이 16일까지 3일간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4일 개막식이 열린 상무시민공원 특설무대에서 내·외빈들이 영호남의 상생·화합을 기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송 광주일보사장과 이상택 매일신문사장, 이용섭 광주시장,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를 비롯해 영호남 국회의원·광역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일보와 대구의 매일신문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018 영호남 문화대축전’ 3일간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성료 광주·대구·전남·경북 단체장들 참석 ... 문화교류 행사 다채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2018 영호남 문화대축전’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18·22면〉** 광주일보사와 대구 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한 이번 문화대축전에는 행사 기간동안 영호남 지역 주요인사들과 1만5000여 명의 지역민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 14일 오후 3시 열린 개막식에는 김영송 광주일보사장과 이상택 매일신문사장을 비롯해 이용섭 광주시장,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 이달희 경북도 정부실장, 안중근 대구시 일자리기획관,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김혜정 대구시의회 부의장, 장재성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병내 광주남구정장, 문인 광주북구정장, 여영현 농협경

북지역본부장, 박대선 농협전남지역본부장 등 영호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서 김영송 시장은 “5년째 광주와 대구에서 영호남 문화대축전을 번갈아 열고 있는데, 따뜻하게 맞아주는 서로를 진정한 형제로 느끼고 있다”며 “영호남 대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국가발전의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이상택 시장은 “광주와 대구는 지역내 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동병상련을 안고 있다”며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이 지역위

기를 잘 극복하리라 믿는다”고 화답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폭설 때 대구에서 제설 장비를 보내고, 광주 시민들이 화재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을 때 이웃의 온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양 지역의 총생산은 매우 낮지만 둘이 협력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영호남 상생을 넘어 하나로”를 주제로 열린 행사장에는 영호남 39개 시군의 농수축산품 부스 59개가 설치됐고 지역 특산품을 구입하려는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평양회담 수행원 이재용·최태원·구광모 등 포함

제3차 남북 정상회담 D-1 한반도 신경제구상 앞당겨질 듯

오는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남측 선발대가 16일 평양에 도착했다. **〈관련기사 2면〉** 선발대는 이날 오전 5시 50분 북측을 향해 출발, 6시 50분 경의선 출입사무소(CIQ)를 통과한 뒤, 육로를 통해 북한에 들어가 이날 오후 평양에 도착했다. 선발대는 보도, 경호, 의전 등에 대한 준비 작

업을 하게 된다. 선발대에는 단장인 서호정외대 통일정책비서관과 권혁기 춘추관장을 비롯해 보도·의전·경호·생중계 기술관계자들과 취재진 등을 포함해 100명 안팎의 인원이 포함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방북단 명단을 발표했다. 임 실장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공식수행원은 14명이며 특별수행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됐다. 공식 수행원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

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김의겸 대변인, 김종천 의전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함께한다. 다만 임 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은 국내 현안 대처를 위해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 수행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

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주요 대기업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또한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당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합류했으며 박지연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단의 일원으로 방북한다. 전국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해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함께한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유홍준 교수와 차범근·현정화 감독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가수 지코와 에일리, 작곡가 김형석 씨도 함께 방북 길에 나선다. /임희준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폭주 자동차·핑음 오토바이
- 광주의 금·토·일 잠 못드는 밤 ▶6면
나지안 동점출판...동점출판...끝내기타
- KIA, SK에 역전승 '6위 점프'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color! Autumn
컬러어뎌?
#으깬장미
THIS AUTUMN
THE NEW MLBB